

현대불교신문

문의: 02-2004-8200

희상 스님의 급강정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희상 스님 크기: 30.5 x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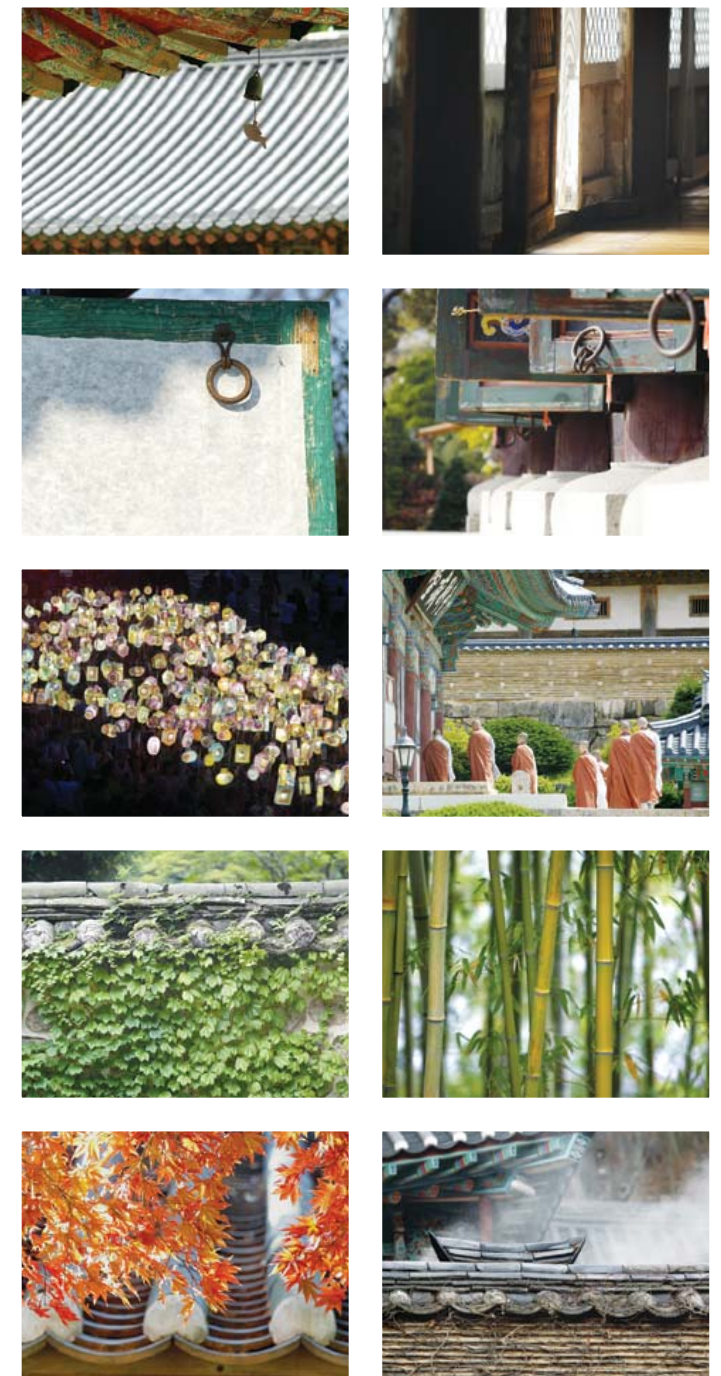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새로운 2008 달력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절의 미학

사진: 박재원 기자 크기: 26.5 x 26.5



불국정토 남산

사진: 고영배 기자 크기: 26.5 x 26.5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이에 사업장을 옮기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새로운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운주사는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기대어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변경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02)3672-7181~4
팩스번호] 02)3672-7186, 7188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